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변화 추이와 특징

| 최효미

1. 연구 필요성
2.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3. 서비스 유형별 이용 실태
4.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변화 추이와 특징¹⁾

최효미 연구위원

SUMMARY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을 전후하여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당 이용시간 및 월평균 이용비용도 상승한 경향이 발견됨.
-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기관은 단시간 학원이 가장 주된 방식이며, 이용 과목은 학습보다는 예체능 관련 과목이 많음.
-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뒤처질까봐 걱정됨',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함', '선행학습 필요' 등으로, 부모들은 보육·유아교육 기관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유아교육 기관 이용 시작 시기가 좀 더 늦은 연령으로 미뤄지면서,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이용 시작 시기가 지연된 영유아에 대한 집중 케어 프로그램 제공,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과 놀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및 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부모 교육 및 객관적 정보 제공 노력 등이 요구됨.

1)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18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원자료(2018~2023)를 활용 분석한 결과임. 기반이 되는 연구보고서는 2023년 기준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이나, 해마다 연구진과 과제명이 조금씩 수정되었음을 주지하는 바임.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연구 필요성

- ▶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음(최효미 외, 2023 : 151).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교육·보육비용으로(최효미 외, 2023 : 152), 영유아기 교육·보육비용은 주로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라 볼 수 있음²⁾.
 -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공존하는 상황이나, 점점 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을 이용하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음.
- ▶ 학생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2024년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음(교육부, 2023. 6)

 - 「사교육 경감 대책」은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이 있긴 하나, 유아에 대한 조치 또한 포함하고 있음.
 - 「사교육 경감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 대상 정책의 주요 실천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음학기 운영,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등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 연계, 3~5세 교육과정 개정 등임.
 - 또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한다고 밝힘.
- ▶ 현재까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는 초·중·고등학교령기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24년 9~10월 중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실시되었음(통계청 홈페이지³⁾).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표본이 약 13,300명(조사단위 : 개인)에 달함(통계청 홈페이지⁴⁾).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를 알 수 있는 대규모 통계 자료는 거의 없었음.
-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아동용 설문에 영유아의 사교육 활용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실시 이전의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3년마다 실시되는 「보육실태조사」와 5년마다 실시되는 「유아교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가 2018년 이후 매년 조사하고 있는 「KICCE 소비실태조사」정도가 있음(이정원·도남희·최효미 외, 2023).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무상 보육교육의 실시와 보육료 상한제 및 원비상한률의 적용으로, 수익자 부담금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임.

3) 통계청. 국가통계대행.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안내. https://kostat.go.kr/board.es?mid=b40302000000&bid=12078&tag=&act=view&list_no=432822&ref_bid= (인출일 : 2024. 11. 18)

4) 통계청. 국가통계대행.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안내. https://kostat.go.kr/board.es?mid=b40302000000&bid=12078&tag=&act=view&list_no=432822&ref_bid= (인출일 : 2024. 11. 18)

- 이 중에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실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조사 설계 및 설문 개발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 자료로, 표본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매년 조사가 실시되어, 유아기 사교육 실태의 변화를 고찰하기 적합함.
- 무엇보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다양한 시간제 사교육 관련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4년 이전의 영유아기 사교육 활용 실태의 변화 양태를 살펴보고, 시의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결과 활용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 본고는 2018년~2023년까지 총 6개 차수의 「KICCE 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활용 실태를 분석함.

- 영유아기 아동별 시간제 사교육 활용 실태를 아동 연령과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비중, 이용 시간, 이용 비용 순으로 고찰한 후, 서비스 종류별로 사교육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추가적으로 고찰함.
- 지난 6년 동안의 영유아 사교육 이용 실태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사교육 이용 행태 특징을 추론해보고자 함.
- 이를 최근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와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함.

2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가.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개관

- ▶ 시간제 사교육은 사교육 기관이나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것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은 제외됨.
 -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은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온라인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등이 있음.
 - 조사 항목은 연도별로 조금씩 구분 방식이 달랐으나, 설문이 통합된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마지막 차수인 2023년 분류 기준에 맞추어 원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함. 단, 중간에 설문이 추가된 경우(예: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등은 조사된 이후 차수 값만 제시함.
- ▶ 「KICCE 소비실태조사」 시간제 사교육 조사 방식은 서비스별 이용 여부, 이용시간, 이용비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문항의 경우 교과목 종류, 이용횟수, 이용 갯수, 만족도 등을 추가 질문한 경우가 있음.

- 본고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고 있고, 아동 연령별 이용 실태는 시간제 사교육을 총합한 형태로 수치이기 때문에, 서비스 종류별로 모두 조사된 항목 - 즉 이용여부, 이용 시간, 이용 비용-을 중심으로 보고함.

▶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38.4%에서 2020년 24.7%까지 하락했다가, 2021년 37.0%, 2022년 37.4%, 2023년 41.1%까지 상승함.**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게 실시되던 시기로,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2020년 이용하지 못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은 41.1%까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은 2018년에는 2.3시간이었는데, 이용 시간이 점차 길어져 2022년 4.6시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3.2시간으로 약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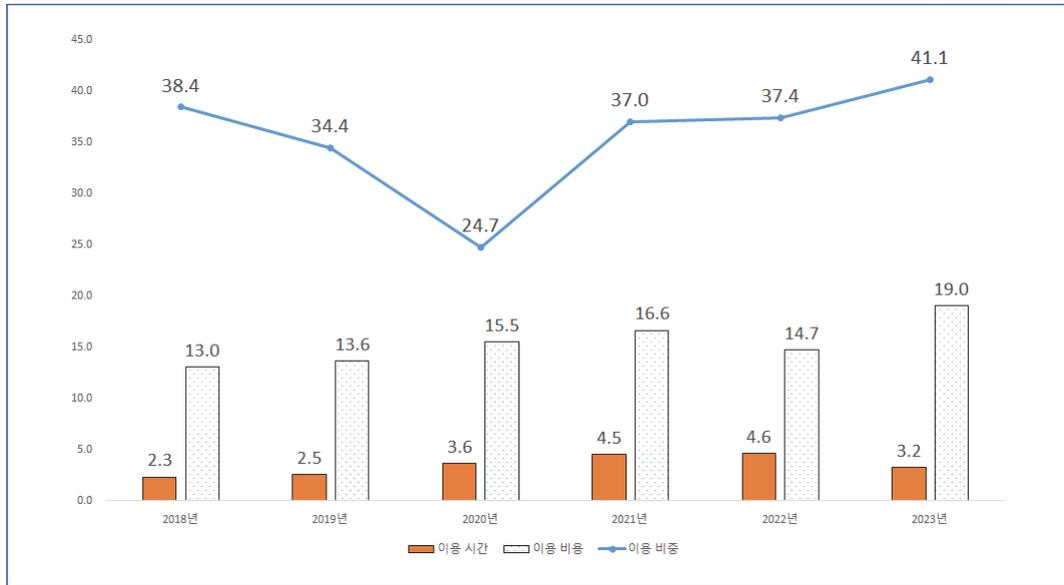
- 2021년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용 시간 또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2018년에는 13만원이었으며,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21년 16만6천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14만7천원에 그침. 그러나, 2023년 사교육 이용비용은 1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은 주당 이용시간이 4.6시간으로 다른 해에 비해 긴 특징이 있는데, 2022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14만7천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함. 이는 2022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비교적 저렴한 서비스에 좀 더 집중되어 있었음을 반증함.
- 2023년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므로, 2023년 시간제 사교육비의 상승은 1인당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함.
- 2023년은 전년 대비 시간제 사교육은 이용시간은 감소하였음에도 이용비용은 크게 상승한 상태임. 이는 영유아 가구들이 좀 더 비싼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높은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단가도 함께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영유아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2018~2023년)

단위: %, 시간, 만원



주 : 1)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이며, 이용비용은 월평균임.

2) 이용 비중은 전체 아동 대비 시간제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의 비중이며, 이용시간과 이용비중은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산출한 값임.

나. 아동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 아동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0세는 3.2%, 1세 18.3%, 2세 16.3%, 3세 23.9%, 4세 44.3%, 5세 64.3%, 6세 83.8%임.

-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모든 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임.
- 생활연령 기준 3세(보육연령 기준 2세)부터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4세 이후로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함. 이는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률과 유사한 패턴으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기관 이용 연령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함.

▶ 시계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모든 연령에서 이용 비중이 전년 대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임

- 2023년에는 모든 연령에서 전년 대비 이용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1] 영유아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18~2023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38.4 (875)	34.4 (799)	24.7(584)	37.0 (888)	37.4 (894)	41.1 (996)
아동연령						
0세	2.4 (3)	1.3 (2)	0.0 (0)	0.0 (0)	0.6 (1)	3.2 (5)
1세	15.8 (42)	13.8 (41)	4.1 (13)	10.3 (32)	15.6 (50)	18.3 (58)
2세	19.7 (58)	14.9 (44)	4.5 (15)	17.0 (60)	12.2 (41)	16.3 (56)
3세	18.8 (67)	21.7 (73)	10.8 (36)	23.2 (85)	21.0 (83)	23.9 (91)
4세	41.8 (152)	32.7 (134)	27.7 (105)	42.7 (155)	44.1 (167)	44.3 (182)
5세	55.3 (223)	52.0 (211)	39.4 (167)	55.9 (226)	61.0 (251)	64.3 (257)
6세	71.9 (330)	69.8 (294)	59.1 (248)	75.3 (330)	72.5 (301)	83.8 (347)

주: 1) 아동연령은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의 비중임.

3) 2세 이하의 경우 이용률이 20% 이하로 낮은 편으로, 관측치가 매우 소수에 불과하므로 주의가 요구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아동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은 2023년 기준 0세 0.8시간, 1세 0.8시간, 2세 1시간, 3세 1.5시간, 4세 2.2시간, 5세 3.6시간, 6세 4.6시간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경향성이 발견됨.**

-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차수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단,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이 긴 6세를 기준으로 주당 이용 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2.9시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 6.3시간, 2022년 6.6시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 4.6시간으로 2시간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앞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이 급감하였다가, 2021년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이용률 뿐 아니라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도 전년에 비해 길어졌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이용시간이 크게 증가한 연령은 6세였으며, 5세도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큰 편이었음.

[표 2] 영유아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8~2023년)

단위: 시간(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2.3 (875)	2.5 (799)	3.6 (584)	4.5 (888)	4.6 (894)	3.2 (996)
아동연령						
0세	1.3 (3)	0.6 (2)	-	-	2.7 (1)	0.8 (5)
1세	1.0 (42)	1.0 (41)	2.2 (13)	0.9 (32)	0.8 (50)	0.8 (58)
2세	1.4 (58)	0.9 (44)	1.3 (15)	1.6 (60)	1.9 (41)	1.0 (56)
3세	1.6 (67)	1.1 (73)	1.5 (36)	2.9 (85)	1.9 (83)	1.5 (91)
4세	1.8 (152)	1.8 (134)	3.0 (105)	3.2 (155)	4.3 (167)	2.2 (182)
5세	2.5 (223)	2.6 (211)	3.1 (167)	4.7 (226)	4.6 (251)	3.6 (257)
6세	2.9 (330)	3.5 (294)	4.8 (248)	6.3 (330)	6.6 (301)	4.6 (347)

주: 1) 아동연령은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아동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3년 기준 0세 7만2천원, 1세 6만7천원, 2세 9만5천원, 3세 12만원, 4세 15만원, 5세 20만6천원, 6세 25만5천원이었음.**

-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시간제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출되므로, 해당 비용이 모든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평균 이용비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는 바임.
-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도 이용률, 이용시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 단, 0세의 경우에는 1세보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관측치가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0세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세라는 특성상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 영유아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2018~2023년)

단위: 만원(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13.0 (875)	13.6 (799)	15.5 (584)	16.6 (888)	14.7 (894)	19.0 (996)
아동연령						
0세	9.3 (3)	4.5 (2)	-	-	21.5 (1)	7.2 (5)
1세	6.5 (42)	5.4 (41)	10.1 (13)	7.5 (32)	6.7 (50)	6.7 (58)
2세	8.2 (58)	7.5 (44)	7.4 (15)	10.4 (60)	10.8 (41)	9.5 (56)
3세	10.7 (67)	8.4 (73)	13.0 (36)	13.5 (85)	15.1 (83)	12.0 (91)
4세	10.3 (152)	12.4 (134)	11.6 (105)	13.5 (155)	16.0 (167)	15.0 (182)
5세	14.3 (223)	12.9 (211)	14.1 (167)	17.1 (226)	19.6 (251)	20.6 (257)
6세	15.5 (330)	18.2 (294)	19.3 (248)	20.4 (330)	21.5 (305)	25.5 (347)

주: 1) 아동연령은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은 2023년 기준 299만원 이하인 경우 35%, 300~399만원 이하 31.8%, 400~499만원 37.3%, 500~599만원 45.7%, 600만원 이상 45.6%이었음.**

- 2023년은 299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 이용 비중이 300~399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약간 높긴 하나, 관측치가 21개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 단,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2023년에만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며, 2019년에도 299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 비용 비중이 300~399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약간 높았음.
- 전반적으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는 모든 차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임.

[표 4]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18~2023년)**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38.4 (875)	34.4 (799)	24.7(584)	37.0 (888)	37.4 (894)	41.1 (99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1.5 (96)	31.2 (53)	19.4 (24)	27.5 (39)	29.3 (31)	35.0 (21)
300~399만원 이하	32.4 (200)	25.7 (166)	20.2 (79)	35.4 (189)	32.9 (167)	31.8 (114)
400~499만원 이하	42.5 (217)	35.2 (218)	20.2 (143)	33.7 (212)	33.0 (187)	37.3 (238)
500~599만원 이하	41.8 (164)	37.7 (159)	28.0 (141)	36.9 (170)	40.3 (198)	45.7 (230)
600만원 이상	43.6 (196)	41.9 (203)	30.8 (197)	43.9 (278)	43.1 (311)	45.6 (393)

주: 1) 가구소득은 명목비용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은 2023년 기준 299만원 이하인 경우 3.3시간, 300~399만원 이하 3시간, 400~499만원 2.9시간, 500~599만원 2.8시간, 600만원 이상 3.7시간이었음.**

- 가구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일단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 이용 시간은 소득 수준과 큰 상관을 보이지 않음.
- 차수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2021년에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이용 시간이 5시간으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길었으며, 2021년에는 500~599만원 이하와 6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이용시간이 5.1시간으로 매우 길었고, 2022년에는 2021과 유사하게 500~599만원 이하와 6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이용 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남.
-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소득 구간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2020~2022년 사이 고소득 구간에서 이용 시간이 길게 나타난 현상은 아무래도 고소득 구간에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결과로 사료됨.

[표 5]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8~2023년)

구분	단위: 시간(명)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2.3 (875)	2.5 (799)	3.6 (584)	4.5 (888)	4.6 (894)	3.2 (99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5 (96)	1.8 (53)	3.2 (24)	3.9 (39)	3.6 (31)	3.3 (21)
300~399만원 이하	2.1 (200)	2.2 (166)	3.0 (79)	4.3 (189)	3.6(167)	3.0 (114)
400~499만원 이하	2.3 (217)	2.2 (218)	2.3 (143)	3.5 (212)	4.3 (187)	2.9 (238)
500~599만원 이하	2.4 (164)	3.0 (159)	3.5 (141)	5.1 (170)	5.4 (198)	2.8 (230)
600만원 이상	2.8 (196)	2.7 (203)	5.0 (197)	5.1 (278)	5.0 (311)	3.7 (393)

주: 1) 가구소득은 명목비용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3) 가구소득을 응답하지 않은 가구가 1차년도 2가구 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3년 기준 299만원 이하인 경우 16만8천 원, 300~399만원 이하 16만1천원, 400~499만원 16만2천원, 500~599만원 18만3천원, 600만원 이상 22만원이었음.

-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이 499만원 이하인 가구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500~599만원 구간은 약간 많이 지출하고, 600만원 이상 구간은 이보다도 좀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이용 금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매우 크게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전반적으로 6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에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이용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외하면, 모든 차수에서 모든 가구소득 구간별로 이용비용의 차이는 일괄되지 않으며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음.
 - 단, 본고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은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으로, 이용률이 가구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감안할 때, 해당 구간 내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미이용자는 0원 처리)을 산출하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될 것으로 사료됨.
- 즉, 영유아기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에 따라 점차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기 보다는 유사한 단가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표 6]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2018~2023년)

구분	단위: 만원, (명)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13.0 (875)	13.6 (799)	15.5 (584)	16.6 (888)	14.7 (894)	19.0 (99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8.7 (96)	10.3 (53)	11.8 (24)	12.1 (39)	13.5 (31)	16.8 (21)
300~399만원 이하	10.7 (200)	11.1 (166)	15.3 (79)	14.5 (189)	14.8 (167)	16.1 (114)
400~499만원 이하	12.4 (217)	11.7 (218)	12.3 (143)	14.1 (212)	17.2 (187)	16.2 (238)
500~599만원 이하	13.9 (164)	16.2 (159)	15.1 (141)	18.9 (170)	18.0 (198)	18.3 (230)
600만원 이상	16.5 (196)	16.7 (203)	18.8 (197)	19.1 (278)	20.7 (311)	22.0 (393)

주: 1) 가구소득은 명목비용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3 서비스 유형별 이용 실태

■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23.1%, 방문형 학습지 12.2%,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2.4%,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3.9%, 개인 및 그룹지도 1.2%, 문화센터 10.4%,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3.2%임.

-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비중은 당해연도 전체 응답 아동 중 해당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임.
- 시간제 사교육 유형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단시간 학원으로, 모든 차수에 단시간 학원 이용 비중이 높았으나, 2020년에는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문화센터의 이용률이 0.9%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단시간 학원 등 집체 교육 형태의 사교육서비스 이용률이 급감함. 단, 2020년에는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 이용률이 3.9%로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2021년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로도 단시간 학원 이용률은 상승하여,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방문형 학습지는 2021년에 15.0%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22년 12.0%, 2023년 12.2%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이용률을 보임.
- 2021년부터 설문에 추가되어 조사된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을 살펴보면, 2021년 3.2%, 2022년 3.4%, 2023년 3.2%로, 코로나19를 전후하여 방문형 학습지가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문화센터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10%내외이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시기에는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문화센터 이용자가 상당수 영아인 점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7]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비중 (2018~2023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 학원	15.5 (353)	16.0 (372)	12.9 (304)	21.3 (506)	21.9 (524)	23.1 (559)
방문형학습지	15.3 (349)	14.6 (341)	12.1 (287)	15.0 (356)	12.0 (286)	12.2 (295)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2.2 (49)	1.7 (40)	1.5 (35)	2.1 (49)	2.2 (52)	2.4 (59)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3.2 (72)	3.2 (74)	3.9 (91)	3.4 (80)	3.3 (79)	3.9 (94)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26)	1.1 (25)	1.0 (23)	-	-	-
개인 및 그룹지도	3.2 (73)	2.5 (58)	1.5 (35)	1.4 (32)	1.9 (46)	1.2 (28)
문화센터	10.0 (228)	8.2 (190)	0.9 (21)	5.7 (134)	7.6 (181)	10.4 (253)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	-	3.2 (76)	3.4 (81)	3.2 (77)

주: 전체 영유아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이용자 수(괄호)으로, 중복 응답 문항임.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83. <표 V-1-21>.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 시간은 2023년 기준 단시간 학원 4.2시간, 방문형 학습지 0.6시간,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0.8시간,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1.3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2.2시간, 문화센터 1.2시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8시간임.

- 단시간 학원의 경우 2020년 이용률은 감소했으나, 일단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은 5.6시간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2시간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외 대부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시간이 2020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은 감소했으나, 일단 이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장시간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했음을 시사함.
-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이 이전에 비해 길어진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음.

[표 8]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 시간 (2018~2023년)

단위: 시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 학원	3.2	3.5	5.6	4.2	3.9	4.2
방문형학습지	0.6	0.5	0.6	0.6	0.6	0.6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0.7	0.8	0.8	0.7	0.8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1.0	1.1	1.6	1.7	3.6	1.3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3	1.0	1.3	-	-	-
개인 및 그룹지도	1.9	1.7	2.1	2.8	2.2	2.2
문화센터	1.2	1.1	2.3	1.2	1.3	1.2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	-	1.9	1.9	1.8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86-187. <표 V-1-24>.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한편, 2023년 기준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을 학습 관련과 예체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인 단시간 학원의 경우 학습 관련 과목 이용 시간이 2.8시간, 예체능 과목 이용 시간이 3.8시간으로, 예체능 관련 이용시간이 1시간 가량 긴 것으로 조사됨.

- 영유아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유형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예체능 과목을 이용하는 경우가 학습 관련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음.
- 다른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학습 관련 이용 시간과 예체능 관련 이용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예체능 관련 이용시간이 주당 1.8시간으로, 학습 관련 이용 시간 1.0시간에 비해 다소 긴 특징을 보임.

[표 9] 시간제 사교육 유형 및 과목별 주당 이용 시간 (2023년)

단위: 시간(명)

구분	학습관련		예체능	
	이용시간	(수)	이용시간	(수)
단시간 학원	2.8	(155)	3.8	(508)
방문형 학습지	0.5	(30)	0.6	(269)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0.9	(24)	0.7	(38)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0.9	(8)	1.3	(86)
개인 및 그룹지도	1.9	(18)	2.0	(12)
문화센터	0.9	(29)	1.2	(237)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0	(3)	1.8	(74)
EBS등 교육관련 방송시청	0.9	(8)	1.6	(21)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학습관련 학원에는 한글,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교과가 포함되며, 예체능 학원에는 체육, 음악, 미술, 기타가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월평균 이용 비용은 2023년 기준 단시간 학원 19만7천원, 방문형 학습지 9만3천원,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13만1천원,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11만3천원, 개인 및 그룹지도 20만5천원, 문화센터 6만원,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2만5천원임.

-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단시간 학원의 이용 비용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은 20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임.
- 단시간 학원,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월평균 이용 비용은 2023년에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반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비용은 전년에 비해서는 약 3만원 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단, 2023년의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은 2020년 14만8천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10]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명목비용, 2018~2023년)

단위: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 학원	13.4	14.2	17.0	17.6	18.0	19.7
방문형학습지	7.4	7.2	8.2	8.6	9.6	9.3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0.2	9.1	11.4	10.2	10.7	13.1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5.6	7.6	8.3	9.2	10.7	11.3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8.8	8.1	8.6	-	-	-
개인 및 그룹지도	12.7	14.8	14.8	21.2	23.1	20.5
문화센터	5.2	4.8	5.5	5.5	5.6	6.0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	-	10.2	9.9	12.5

주: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1~6차년도 원자료.

▶ 사교육 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라는 응답이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2023년 기준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라는 응답이 36.1%,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27.8%,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가 10.7%임.
- 반면, 자녀의 사회성 개발 등과 관련된 이유('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 양육공백('퇴근 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등의 사유는 10% 이하의 높지 않은 비중을 보임.
- 이는 부모들이 공보육·유아교육 서비스만으로는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 활동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풀이될 수 있음.

- 그런데, 앞서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기에는 학습 관련 활동보다 예체능 관련 시간제 사교육이 이용이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들은 현재 공보육·유아교육 서비스에 예체능 교육 활동이 적다고 느끼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11] 사교육 비용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3년)

단위: %(명)

구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8.3	8.1	5.7	7.5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31.1	36.2	35.6	36.1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9	5.3	3.6	6.5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26.5	27.4	30.5	27.8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2.7	1.4	2.6	2.4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2.0	11.1	10.5	10.7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0.5	1.1	2.5	2.5
아이가 원해서	9.5	7.7	7.7	4.3
기타	1.0	1.6	1.3	2.2
모름	2.4	0.0	-	-
계(수)	100.0 (220)	100.0 (291)	100.0 (315)	100.0 (294)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91. <표 V-1-31>.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01$.

4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을 전후하여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도 상승한 경향이 발견됨.

-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기관은 단시간 학원이 가장 주된 방식이며, 이용 과목은 학습보다는 예체능 관련 과목이 많음.
-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뒤쳐질까봐' 걱정된다,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등으로, 부모들은 공보육·교육 기관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유아교육 기관 이용 시작 시기가 좀 더 늦은 연령으로 미뤄지면서 (최효미 외, 2023),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 6월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맞춤형 방과후 과정 운영의 확대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보육·유아교육 기관에서 부모들의 요구에 반영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방과후 프로그램은 이용하던 기관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의구심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공보육·유아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확산이 시급히 요구됨.
-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 홍보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등에 대한 부모의 오해를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시기(2020년)의 영유아 코호트, 특히 2016년생~2018년생(당시 보육연령 기준 1세~3세)에 대해서는 공보육·유아교육 과정과 더불어 집중 케어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여, 학부모의 염려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016년생~2018년생(당시 보육연령 기준 1세~3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이용 시작 시점이 밀리면서, 해당 연령일 때 해야 하는 교육 활동을 자녀가 받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부모들 사이에 깔려 있을 수 있음.
- 이 시기 기관 이용을 하지 못한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조속히 실시하여, 부모들의 과도한 오해와 염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기관 이용이 늦어짐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코호트의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집중 케어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여 적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와 불필요함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정규 보육·유아교육과정만으로도 아동이 발달을 위한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아동이 편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됨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 부모들은 특히 예체능 관련 시간제 사교육을 놀이 활동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진정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를 위해서는 부모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3.6). 사교육 경감대책.
- 이정원·도남희·최효미·박은영·손창균(2023).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기초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조미라·우석진·김태우(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인터넷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대행.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안내. https://kostat.go.kr/board.es?mid=b40302000000&bid=12078&tag=&act=view&list_no=432822&ref_bid= (인출일 : 2024. 11. 18)

[통계원자료]

-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2018년)~6차(2023)년 원자료.
-

최효미 연구위원 hmchoi@kicce.re.kr

2024 KICCE ISSUE PAPER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변화 추이와 특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www.kicce.re.kr